

「모두의 계획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 부문별 1차 소모임 [일자리-로컬경제-농업] 부문 보고서 -

일 시	2026년 7월 26일(일) 10:00 ~ 12:00
장 소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103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성원보고	총 15 명 중 11 명 참석
참 석 자	진행위원 : 이상욱(퍼실), 이향미(기록), 박정숙(미디어) 일반단원 : 연제창, 김성원, 장영준, 홍은희, 김영주, 민유순, 이재영, 나윤하 지원센터 : 홍윤경
미션 1. 부문별 단원 소개	
이상욱 퍼실팀장	- 귀농 정착과 농업 분야 경력 ▷ 2021년 아버지의 고향인 오창 학소마을에 귀농하며 청주에 정착함 ▷ 귀농 전에는 농업 분야 연구직으로 근무하며 분자생물학과 유전자 편집을 연구 ▷ 연구보다 현장에서 직접 농업을 해보고 개인 사업도 운영하고자 귀농했으며, 현재 4년째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청주시 차원의 활동 ▷ 청주에 연고가 없어 지역 기반을 만들고 청주시를 알아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함 ▷ 청주시활성화재단의 농촌 신활력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함 ▷ 농업·로컬경제 관련 심사 등에 참여하며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청주시의 정책과 사업을 알아가고 있음 - 지역 차원의 활동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참여해 지역주민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함 ▷ 오창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 ▷ 지역주민들과 함께 농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음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와 관심 분야 ▷ 농업뿐 아니라 향후 농업 분야의 바이오기업 운영도 준비하고 있어 농업·로컬경제·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 ▷ 부문 내에서 농업에 관심을 가진 단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 농업 분야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함 ▷ 퍼실팀장으로서 단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고 농업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함

사
진



이향미
기록팀장

- 청주 정착과 생활 배경

- ▷ 결혼 후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와 약 35년째 거주하고 있음
- ▷ 처음에는 연고가 없어 적응이 어려웠고, 가로수길을 지날 때면 낯선 청주 생활에 눈물이 날 정도로 막막함을 느꼈음
- ▷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청주에 익숙해졌으며, 이후에는 음성만 지나도 “집에 다 왔다”고 느낄 만큼 청주가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음

- 교육·NGO·사회복지 분야 활동

- ▷ 사범대를 졸업했으나 교직으로 진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함.
- ▷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했으며, 이후 NGO에서 오랫동안 활동
- ▷ 뒤늦게 사회복지 분야로 들어와 노인 분야에서 일한 뒤 현재는 아동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음
- ▷ 올해 12월 말 정년을 앞두고 있음

- 정년 이후 일자리와 경험 활용에 대한 관심

- ▷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일자리와 로컬 분야에 관심이 많음.
- ▷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활동하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배우고 쌓은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일을 마무리하는 점을 아쉽게 느끼고 있음
- ▷ 젊은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사회에 조금 더 기여하고 활용하고자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 좋은 단원들과 함께하면 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음

사
진



- 현재 활동

- ▷ 청소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회사가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됨

- 관심 분야

- ▷ 외국인 일자리 문제에 공감하고 있음.
- ▷ 교육 분야에도 관심이 있어 처음에는 교육 부문에 지원함.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함.
- ▷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봉사와 시민활동에 함께하고자 함.

박정숙
미디어팀장

사
진



이재영	- 전문 분야와 관심 ▷ 청주대학교 무역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 ▷ 지역경제,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관심이 많음 - 참여 동기와 활동 의지 ▷ 청주가 고향이며, 시민참여 책임을 맡고있는 박 교수의 추천으로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함 ▷ 시민계획단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함 사 진 
홍은희	- 금융복지 업무와 관심 분야 ▷ 금융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일자리 등 여러 분야와 업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함 ▷ 경제 분야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아쉬웠으며, 이를 통해 지역이 안정되기를 바램 - 빠른 경제발전에 대한 생각 ▷ 녹색포럼에서 소개된 『어쩌다 선진국』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급하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함 ▷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많으며, 이제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봄 ▷ 피지컬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2045년은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라고 생각해 함께 목소리를 나누고자 참여함

	사 진 
민유순	사 진  - 도시농업 활동 ▷ 귀농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농업관리사로 활동하고 있음. ▷ 활동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됨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시민계획단 활동에 대한 궁금증으로 참여했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사 진  - 생활과 관심 분야 ▷ 현재 주부로 생활하고 있으며, 일자리 분야에 관심이 많음.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활동 내용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청주시민으로서 청주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관심이 있어 참여함.

	- 전공과 관심 분야 ▷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청년으로서 청년 일자리 분야에 관심이 많음. ▷ 청주의 다양한 특산물과 농업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청원생명쌀과 같은 지역 특산물이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전국과 해외에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함 ▷ 지역 특산물의 홍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단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고자 참여함
김성원	사 진 
	- 청주에서의 생활 ▷ 청주 출신은 아니지만 청주에서 약 6년째 생활하고 있음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지역소식지에서 시민계획단 모집 소식을 접하고 참여함 ▷ 특별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성실하게 참여해 좋은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함
장영준	사 진 

연제창

- 청주에서의 생활과 공직 경험

- ▷ 청주에서 태어나 학교와 직장생활을 모두 한 청주 토박이임
- ▷ 2020년까지 공무원으로 약 20년간 근무했으며, 여러 분야의 행정업무를 폭넓게 경험한 뒤 퇴직함
- ▷ 지난 도시계획 과정에서도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경험

- 현재 활동

- ▷ 현재 행정사로 활동하며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음
- ▷ 소규모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 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상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 심리상담사 자격증 발급 관련 업무도 하고 있음

- 관광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

- ▷ 관광과 일자리는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해 어느 부문에 참여할지 고민함
- ▷ 현직에 있을 때부터 도시가 성장하려면 관광산업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음
- ▷ 민선 체제에서는 시장의 관심이나 전임자 사업에 대한 입장에 따라 좋은 정책도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봄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 특정 관심이나 임기 변화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계획이 기본부터 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청주의 장기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충실하게 만들어보고자 참여함

사
진



나윤하		- 참여 과정과 생각 ▷ 지인의 권유로 시민계획단에 지원했으며, 희망했던 분야가 아닌 2순위 분야에 배정된 것으로 생각함 ▷ 익숙하지 않은 분야라 아쉬움이 있지만, 다른 단원들에게 배우며 참여하고자 함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일반 주부이자 청주시민으로서 공공기관의 행사나 활동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함 ▷ 시민계획단을 통해 청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직접 참여하고자 함 ▷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참여함
	사진	

미션 2. 부문별 주요 현안 공유		
현안	제안자	세부 내용
1.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과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기반	연제창	- 제조업·소상공인·농업의 인력 부족과 대체인력 확보 ▷ 청년·노인 일자리뿐 아니라 외국인 일자리와 농촌 일자리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봄 ▷ 제조업·소상공인·농업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함. ▷ 부족한 일손을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장영준	- 일자리 부족과 일손 부족의 구분 ▷ 실제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사업장에 가보면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어, 일자리 부족인지 일손 부족인지 구분할 필요 ▷ 외국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연제창	[해결 아이디어가 있다면?] - 외국인 유학생·근로자의 지역 정착과 관리체계 마련 ▷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가 지역에 적응해 지역의 일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인 <u>근로유학생 제도를 활성화</u>해야 한다고 제안함 ▷ <u>농촌의 외국인 인력 도입이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도록 해당 국가와의 협력 및 관리체계를 보완</u>해야 한다고 봄

2. 취약계층의 일자리 진입과 자립 지원	장영준	[교육·복지·공동체 분야 × 일자리·로컬경제·농업] - 복지에서 일자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지원 중단 문제 ▷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일을 시작해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차감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과 여러 혜택이 한꺼번에 중단되는 문제가 있음 ▷ 일을 통해 자립하려 해도 기존 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급자가 제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봄 ▷ <u>복지에서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 단계적인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함</u> ▷ 실제로 일을 계속하기 위해 월 80만 원 수준의 지원은 포기함 ▷ 일을 선택하면 현금 지원뿐 아니라 여러 복지혜택도 함께 중단될 수 있어, 자립을 위한 선택이 쉽지 않음
	연제창	[부연설명] - 근로의욕을 낮추는 소득차감 구조 개선 ▷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8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해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지원액이 줄어들고, 기준을 넘으면 제도에서 탈락하게 됨 ▷ 일을 하며 에너지를 들여도 기존 지원액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만 얻게 된다면, 일을 하지 않고 지원을 받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이러한 제도가 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낮추고, 일시적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가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일자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함
	나윤하	[교육·복지·공동체 분야 × 일자리·로컬경제·농업] - 다자녀가정의 지원정보 접근성과 자녀의 미래 일자리 ▷ 자녀가 많아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실질적인 교육·복지 혜택이 많지 않다고 지적함 ▷ 다자녀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정보와 혜택을 보다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 자녀들의 미래 일자리 문제도 교육·복지와 함께 연결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복지·돌봄 분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	이향미	- 복지·돌봄 현장의 인력 부족과 종사자 고령화 ▷ 아동·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노인시설은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함 ▷ 복지시설의 업무 강도가 높고 이직률도 커, 작은 시설에서도 짧은 기간에 여러 명이 교체되는 상황 ▷ 젊은 종사자 채용을 시도해도 힘든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에 퇴사하면서, 결국 50대 이상이나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게 됨 ▷ 외국인 돌봄인력 의존이 늘면서 언어소통과 돌봄의 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함 ▷ 나이와 세대를 구분하기보다 역량 있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지 분야의 근무환경과 일자리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함
	연제창	- 평가업무 부담에 따른 보육교사 이직 문제 ▷ 어린이집도 평가 시기가 되면 업무 부담으로 교사들의 퇴사가 늘어나며, 퇴직한 교사를 다시 채용하는 현상이 나타난
	이재영	- 세대 특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 ▷ 청년층을 단순히 힘든 일을 기피한다고 비판하기보다, 달라진 세대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함
	이향미	[복지 분야의 높은 이직률이 주로 업무 강도와 힘든 근무환경 때문?] - 외국인 돌봄인력 확대와 돌봄의 질 관리 ▷ 실제로 젊은 종사자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짧은 기간 안에 퇴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과 책임감 약화가 복지 현장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봄
	홍은희	- AI·로봇을 활용한 돌봄업무 보완 ▷ 인력 부족과 인력관리의 어려움으로 피지컬 AI와 자동화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봄 ▷ 돌봄 분야도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해 종사자의 업무를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향미	- 사람의 돌봄과 기술지원의 역할 구분 ▷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돌봄에는 사람이 직접 담당해야 할 역할이 남아 있다고 강조함 ▷ 사람의 돌봄과 기술의 지원 역할을 구분하면서, 복지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함

4. 지역경제 성장의 시민 체감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홍은희	- 기업 성장의 성과를 시민 생활경제로 연결 ▷ SK하이닉스 등 기업 성장으로 청주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주민의 소득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수도권 본사나 외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소비로 순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봄. ▷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과 지원 축소로 지역의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동안 축적한 기반도 무너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함. ▷ <u>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지역경제의 성과가 시민의 생활경제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u>
	연제창	[추가 의견] - 수익의 외부 유출과 지역 내 고용효과의 균형 검토 ▷ 지역에서 돈을 벌더라도 실제 소비가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거나,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수익이 본사로 이전되는 구조가 있음 ▷ 다만 대기업과 대형 유통시설도 지역주민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외부로 이전되는 수익과 지역 내 고용효과를 함께 살펴야 함 ▷ <u>생산시설 중심 일자리와 유통·서비스 등 생활형 일자리 가운데 어떤 분야를 확대할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u> ▷ 청주·청원 통합 이후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시민에게 직접 돌아오는 체감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함
	홍은희	[지역에서 번 소득을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만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 청주페이를 활용한 지역 내 소비순환 ▷ 구체적인 방식은 더 논의해야 하지만, <u>청주페이와 같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안에서 소비가 순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예로 제시함.</u> ▷ 핵심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시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생활경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
	홍은희	[사회적기업은 초기 지원 이후 자체적인 경쟁력과 수익구조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닌지] -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지원과 자립기반 확보 ▷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생산성과 자립기반을 갖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과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함. ▷ 지원을 계속 의존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사회가 충격을 완화하고 기반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사회적기업 지원금은 자생적인 운영단계를 준비하도록 제공되는 것이지만, 보조금에 의존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음 ▷ 지원을 유지하는 문제뿐 아니라, 지원기간 동안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운영구조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함.

4. 지역경제 성장의 시민 체감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이향미	[사회적기업 운영 경험] - 사회적기업 지원 종료 이후 고용유지 강화 ▷ 일자리 지원금이 중단되자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지 못하고 해고하는 사례가 있었음 ▷ 일부 기업은 지원기간 동안만 근로자를 활용하고, 지원 종료 이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 ▷ <u>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자생력 확보와 고용유지 노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봄.</u>
	홍은희	- 노동자 참여형 협동조합과 지역소득 순환 ▷ 노동자가 운영과 자본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 등을 통해 소득이 지역과 구성원에게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함. → 우진교통 사례 제시 (전 직원이 주주라 가능)
5. 청주 농업의 권역별 특화와 연계산업 육성	이상욱	- 청주·청원 통합 이후 획일적인 농업정책 개선 ▷ 청주·청원 통합 이후 농업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하나로 묶여 추진되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함. ▷ 청주는 외부 기업과 사업, 예산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유입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스스로 지역을 개발하고 홍보하려는 자생적 역량이 약해졌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권역별 자원을 활용한 특화농업 육성 ▷ 농업도 모든 지역에 체험·가공·관광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각 구의 여건과 자원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를 나눠 육성할 필요 → <u>상당구는 미원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업,</u> → <u>청원구는 공향과 과학단지를 활용한 수출농업,</u> → <u>흥덕구는 화장품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농업,</u> → <u>서원구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술·교육 분야로 특화</u>
		- 권역 간 수출 · 상품개발 · 연구 · 기술지원 연계 ▷ 각 권역의 전문가와 자원을 연결해 수출, 상품개발, 연구, 기술지원 등을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 도시계획은 연구특구 등 지역별 기능을 구분해 추진하면서도 농업은 단일 분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u>농업도 지역별 콘셉트와 지원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u>

6. 시민의 농업 참여 확대와 농촌 인력 기반 강화	나윤하	- 일반시민의 농업교육 접근성 개선 ▷ 일반시민이 농업교육에 참여하려 해도 농촌 거주나 영농경력 등의 조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농업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도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일반시민의 농업 참여 기회를 넓혀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봄
7. 농특산물 가공·브랜드와 체험형 로컬경제 활성화	김성원	- 농특산물 체험형 홍보와 구도심 상권 연계 ▷ 충주 등 다른 지역은 농산물을 유튜브 등으로 적극 홍보하지만, 청주는 농특산물 홍보가 부족함 ▷ 청원생명딸기와 가덕의 딸기 체험농장 등 지역 농산물과 체험자원이 시민에게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음 ▷ 농산물 관련 부서와 협업해 성안길 등 구도심에서 과일 게임과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농특산물 홍보와 침체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김성원	[청주의 여러 농특산물을 각각 홍보해야 하는지, 논산의 딸기처럼 청주를 대표하는 한 가지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하는지?] - 청주 대표 특산물 또는 대표브랜드 집중 육성 ▷ 여러 품목을 개별적으로 홍보하기보다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산물이나 브랜드를 정해 집중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u>지역 특산물을 게임과 체험 등 재미있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꿈쟁도시 청주’와 같은 슬로건으로 실제 시민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져야</u> 한다고 제안함
	연제창	[추가 의견] - 농산물 2차 가공품과 청주 대표 로컬브랜드 개발 ▷ 청주는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나 인지도가 앞선 대표 농산물이 뚜렷하지 않아, 농산물 자체를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청주시에서도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청주삼겹살 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왔지만, 쌀은 이천·여주, 꾀감은 상주처럼 이미 특정 지역과 품목이 강하게 연결된 상황을 따라가기 어려움 ▷ 따라서 농산물 원물 자체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2차 가공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대전의 성심당처럼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가공상품과 브랜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8. 전통시장·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지역경제 조성	김영주	- 문화·관광자원 부족과 체류형 공간 확충 ▷ 청주는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 ▷ 문화와 예술을 즐기기 위해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도시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 ▷ 가까운 단양이나 제천과 비교해도 관광할 곳과 오래 머물 공간 부족 ▷ <u>관광자원을 만들고 활성화하면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제안</u>
	연제창	[부연설명] - 관광객이 4~6시간 머무는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 청주는 관광 볼거리를 조성하더라도 규모가 작고 폐쇄적으로 만들어져, 현장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함 ▷ 초정행궁과 치유마을 등도 실제 방문 시 체험하거나 시간을 보낼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아, 잠시 둘러보고 떠나는 공간에 그침 ▷ 소규모 시설은 운영이 어렵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기존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 <u>관광객이 한 장소에서 최소 4~6시간 머물 수 있도록 규모 있는 시설과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함.</u> ▷ 체류시간이 늘어나야 관광시설 운영이 안정되고 관련 일자리도 확대될 수 있다고 봄
	김영주	[혹시 청주에 여기는 내가 볼거리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대가 있다면?] - 문화제조창의 상시 콘텐츠와 로컬상품 확대 ▷ 문화제조창이 전시와 마당 행사, 로컬상품 판매 등을 통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봄 ▷ 전시와 행사가 짧고 일시적으로 운영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찾거나 오래 머물기 어렵다고 지적함 ▷ 판매되는 로컬상품도 실제로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부족해 방문이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함 ▷ <u>상시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경쟁력 있는 로컬상품을 확충해 지속적으로 머물고 즐기며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u>
	민유순	- 장날의 분위기와 볼거리가 있는 지역장터 활성화 ▷ 청주에는 장날을 구경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활발한 장터가 부족 ▷ 오송 주민은 조치원장을, 현도 주민은 신탄진장을 이용하는 등 가까운 다른 지역 장터로 이동하고 있음 ▷ <u>청주에도 주민과 지역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장터를 활성화해, 장날에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u>

8. 전통시장·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지역경제 조성	연제창	[부연설명] - 전통시장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5일장 기능 보완 ▷ 청주에는 육거리시장 등 규모 있는 전통시장이 있지만, 5일장 기능과 장날의 볼거리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장터를 확대하려면 기존 전통시장 상인회와 노점상 등 이해관계자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시장 상인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
	민유순	- 장터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하루 관광코스 ▷ 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품목이 다양하고 상품의 신선도도 높지만, 제안의 핵심은 단순한 농산물 판매공간보다 장날의 분위기와 구경거리가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함 ▷ 미원장 등을 방문할 때 장보기뿐 아니라 마을 구경과 미동산 방문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u>장터와 주변 관광자원 두세 곳을 묶은 하루 관광코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함</u> ▷ 젊은 방문객이 시장 한 곳만을 목적으로 찾아가기는 어려우므로, 먹거리·볼거리·체험을 함께 구성해 청주권 안에서 머물고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봄
	나윤하	- 청주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외부 홍보 강화 ▷ 청주에서 영화 촬영과 문화·예술 활동이 늘면서 과거보다 알려지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여전히 청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청주의 문화·관광 자원과 다양한 활동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연제창	- 관광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조성 ▷ 청주는 국토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정부정책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아 도시의 주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 ▷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u>관광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해야 하며</u>,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9. 일자리·농업·로 컬경제 통합정보 기반 구축	이재영	- 축제·농산물·일자리·경제 통합정보 제공 ▷ 청주에 오래 살아도 지역의 축제, 농산물, 일자리, 경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함 ▷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u>통합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안함</u> ▷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농산물 인지도와 지역경제, 일자리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봄

시민계획단 활동 기록



단원소개 (1)



단원소개 (2)



현안 의제 공유 (1)



현안 의제 공유 (2)



현안 의제 공유 (3)



현안 의제 공유 (4)



현안 의제 공유 (5)



현안 의제 공유 (6)



단체사진 (1)



단체사진 (2)



단체사진 (3)



단체사진 (4)

[모두의 계획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부문별 1차 소모임 참석 명단

- 일 시 : 2026년 7월 26일(일) 10:00
- 장 소 :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103호

[일자리 · 로컬경제 · 농업] 부문

※ 부문별 팀 일반단원은 접수번호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번호	접수번호	이름	생활권	진행위원	서명
1	52	이상욱	청원(오창)	퍼실팀장	이상욱
2	11	이향미	상당	기록팀장	이향미
3	73	박정숙	흥덕	미디어팀장	박정숙
4	5	연제창	청원	일반단원	연제창
5	6	김동희	상당	일반단원	-
6	12	김성원	상당	일반단원	김성원
7	15	이대형	서원	일반단원	-
8	66	김호섭	도심	일반단원	-
9	81	장영준	서원	일반단원	장영준
10	82	홍은희	도심	일반단원	홍은희
11	111	김영주	서원	일반단원	김영주
12	112	민유순	서원	일반단원	민유순
13	138	이재영	청원	일반단원	이재영
14	177	임경선	흥덕(오송)	일반단원	-
15	179	나윤하	상당	일반단원	나윤하